

현대정유의 안전관리활동과 향후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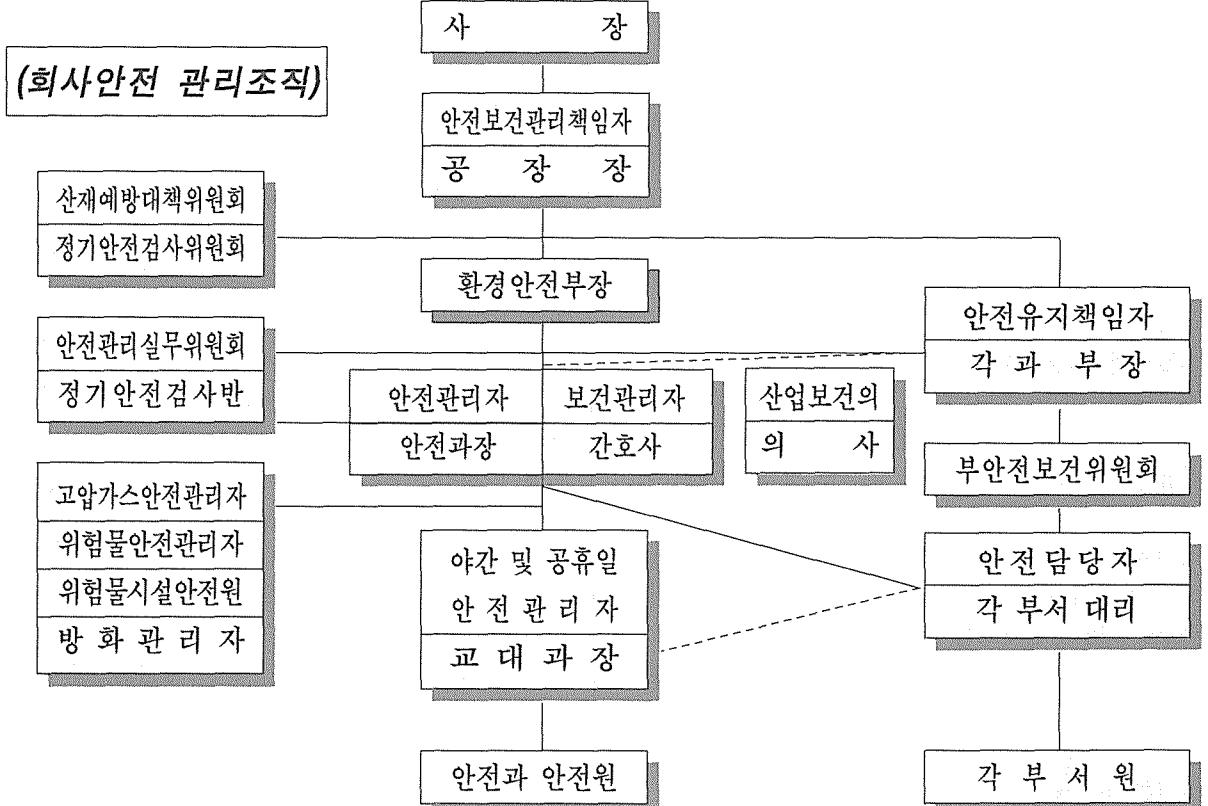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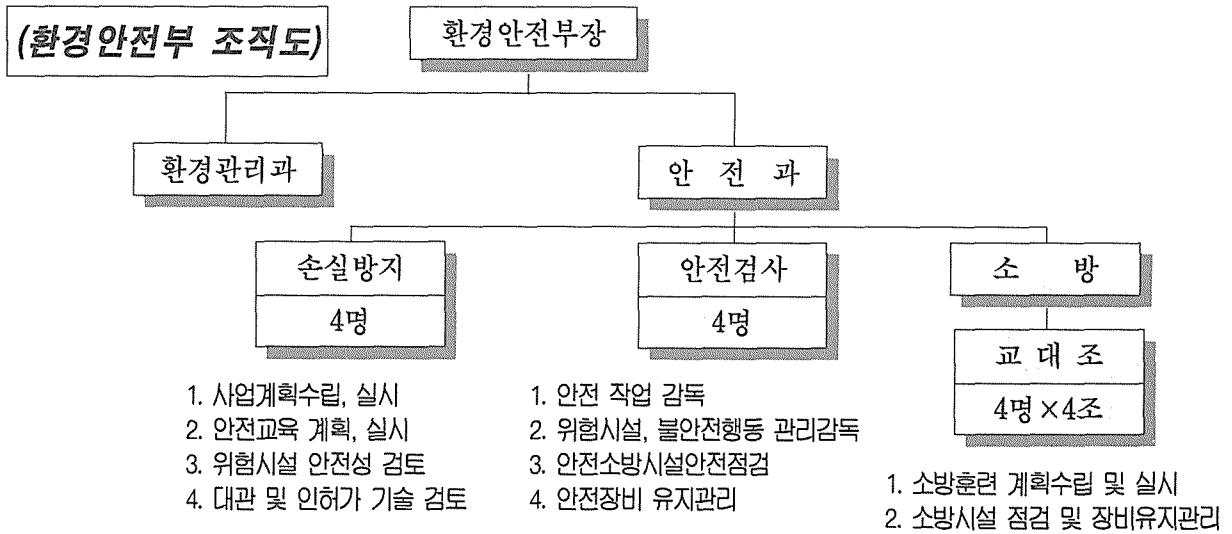
金鍾根
<현대정유 안전환경부 대리>

우리 주위에서 잊혀질만하면 발생하는 사고들-부산 열차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아현동 가스 폭발사고, 대구 지하철 공사장 도시가스 폭발 사고 등-을 접할때마다 우리들은 원인 및 대책에서 항상 너무나 획일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전사고 예방을 수립하였더라면 하는 생각을 참사가 일어날때마다 또 그때마다 연일 TV, 신문등 대중매체는 물론, 정부, 관련단체 및 협회등에서 떠들썩하다. 그러나, 그도 잠시 어느정도

세월이 지나면 우리들 머리속에서 잊혀지고, 얼마 지나면 또다시 참사가 일어나 우리에게는 사고가 반복되어지는 일로 무관심하게 여겨지고 있는듯 하다.

현대정유에서는 상기와 같은 참사는 물론, 동종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관리 활동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현대정유의 환경안전부 및 안전관리 조직은 다음과 같다.



현대정유의 안전관리 목표는

1. 안전 제일로 종업원의 생명과 회사 재산 보호
2. 손실 방지 및 품질관리로 생산성 향상의 극대화.
3.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4. 전 직원의 안전관리 요원화를 안전관리 목표로 하고 환경안전부장을 중심으로 25명의 안전과원 및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오늘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선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으로는 먼저 신입사원은 안전의 기초지식과 안전, 소방장비 사용법등 소방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실시하는 종업원 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규정, 사고 사례등을 중심으로 반복 교육이 이루어진다. 또한 집합교육의 단점-부서 특성에 맞는 교육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월 부서 자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사고발생 부서에 대한 사고예방 안전교육, 정기보수작업이전에 이루어지는 소속부서의 안전검사원에게 이루어지는 가스 검사자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당 공장에 출입하는 모든 협력업체도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출입을 못하도록 하여 공장내 어떤 사람도 안전규정을 숙지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훈련으로는 부서별 정예 요원으로 구성된 소방 기동대원들은 매월 가상 화전을 설정, 불시에 소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전 직원들은 소화기 사용방법, 소화전 사용방법 등을 년 2회 실시하는 기초 소방훈련을 통하여 습득하게 된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소방훈련은 다시 11월 부서별 소방 경연대회를 통하여 부서별 경합을 벌이게 된다. 이 소방 경연대회를 통하여 소방의식 고취는 물론이고 부서원의 단합을 도모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직원 가족들의 소방의식 고취 및 올바른 소화기 사용방법등을 위하여 하계 소방학교를 실시한 바 있다.

현대정유의 안전회의로는 부서장 이상으로 하는 산재예방대책위원회 회의가 격월로 실시된다.

이 회의는 안전, 보건 및 환경에 대한 중요 사항 결정 및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회의시 상정된 안전에 대한 심의 결정을 한다.

안전관리 실무 위원회 회의는 과장급으로 이루어지는 회의로써 매달 실시하고 실무적인 안전 보건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고 산재 예방 대책위원회 회의에 상정된다. 또한 부서 안전보건 관리 위원회 회의는 매달 부서장이 위원장이 되어 그 부서의 안전에 관한 문제점을 토의 결정한다.

또한 안전 검사 제도로는 임원진 환경안전 보건검사, 정기환경 안전검사, 안전과 안전검사로 이루어진다. 임원진 환경 안전 보건 검사는 임원진들로 검사반을 편성, 년 1회 실시하여 종합적인 환경 안전 보건평가를 한다. 정기환경 안전검사는 분기마다 과,부장으로 검사반을 편성, 각 지역의 정리 정돈에서부터 설비, 기계, 기구의 유지 관리 상태등 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시한다. 위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타 업무에 비해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산재예방 대책위원회 회의시 보고되고 있다. 안전과 안전검사는 안전과원들로 편성하여 수시로 작업장내 불안전 행동 및 불안전 상태등을 지적하여 조치토록 하고 있다. 매년 실시되는 정기보수 기간동안에는 안전과 전원이 각 과의 안전 검사원(가스검사자 교육 이수자)들과 함께 모든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기간에 오히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현대정유 공장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은 안전 작업 허가요령에 의한 안전작업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작업이 이루어지며, 작업 이전 작업전 5분안전 교육 및 회의를 실시하여 작업도중에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요소를 제거한 후에야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현대 정유의 안전행사로는 매년 7월을 산업안전 강조의 달로 설정하여 1년간의 안전 사고의 발생 및 정도,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 실시 및 참가현황, 안전규칙 위반현황등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관리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안전관리에 모범이 되는 직원들을 선정하여 안전관리 유공자 및 안전 관리 모범사원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다.

또한 전 직원의 안전의식을 더욱 고취코자 91년 공장 무재해 운동 시행 요령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무재해를 노동부 무재해 및 공장 무재해, 부서별 무재해로 구분하고 있는데, 공장 무재해는 50만인시, 100만인시, 200만인시…등으로 목표를 정하여 달성을 할 때마다 무재해 상품을 포상하고 있다. (100만인시 달성 소요기간 : 9개월) 부서별 무재해는 부서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무재해 목표를 설정, 이를 달성을 할 때마다 상품을 지급하고 있다. 그 결과 공장 무재해 100만인시를 3회 달성을 하는 등 부서별 목표 달성을 의식이 공장 무재해로 확산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현대정유의 자체 소방활동으로는 전 직원을 자위 소방대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 자위 소방대조직은 공장장이 대장이 되고, 생산담당 및 관리담당임원이 부대장이 되며, 비상 지휘부, 비상 통제부, 복구부, 의료구호부, 경계방호부등으로 부를 편성, 부밀에 3~4개의 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

자위 소방대 조직중 각 부서별 일정 인원을 정예 요원을 소방 기동대원으로 선발하여 매년 소방훈련을 실시하며, 화재등 사고 발생시 만전을 기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인간의 불안전 행동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안전관리 활동은 물론 구조, 건축물 및 기계, 기구등을 설치할때에 설치하기 전에 안전과와 협의하여 안전을 확보토록 하는 한편, 공정안전 관리를 위하여 금년 4월 HAZOP팀을 구성, 이에 대한 교육을 마무리하여 현재 증설되고 있는 공장의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당 공장 20만 배럴 증설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검토, 확인 및 완성검사, 소방법에서 정한 위험물 제조소등의 변경 허가 신청, 소방시설의 검사들을 수행하면서 공사 기간에 차질이 없도록 대관 업무를 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소방 시설의 구매 이전의 자료 및 도면검토, 입고시 검수, 설치시 확인감독으로 100% 사용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대정유 안전관리의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증설후 증원될 인원등 전 직원의 안전의식을 더욱 고취시키고, 둘째, 기존 시설에 대한 계속적인 안전진단 실시, 셋째 PSM 및 HAZOP등 계속적인 추진으로 설비, 기계, 기구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추진할 것이며, 넷째,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지도 및 안전교육의 계속적인 실시, 다섯째 안전시설을 더욱 확충하여 불안전행동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설비의 결함등 불안전 상태로 인한 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지금까지 현대정유에서의 안전관리 활동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들 대개는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안전의 중요성을 성토하다가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잊혀지고, 다시 동종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본다. 대형 참사가 이어져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사고들을 접할때마다 우리들 가슴은 구멍이 뚫린 것마냥 허전하고 씁쓸하기만 하다. 물론 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사후의 대책 수립의 철저한 시행, 사고의 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현대정유는 상기와 같이 동종 및 유사한 사고로 또 다시 가슴에 멍드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전력 투구할 것이다. ☺